

#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상호관계에 관한 체계적 문헌 연구 —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최인찬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박사 수료(제1저자)

이채윤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박사 과정(공동저자)

류수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공동저자)

임혜정 능곡고등학교 교사(공동저자)

이선영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공동저자)

유백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공동저자)

조병영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러닝사이언스학과 교수(교신저자)

- \* 이 연구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22S1A5A2A03053655).
- \*\* 이 논문은 제7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2.11.12.)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연구의 목적
- II.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 III. 체계적 문헌 연구 기법
- IV. 연구 결과의 분석
- V. 논의 및 제한점

## I. 연구의 목적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OECD의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로 ‘학습자와 사회의 웰빙’을 제시하였다(OECD, 2018: 3). 기존의 DeSeCo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Education 2030은 웰빙, 즉 삶의 질과 관련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한다(OECD, 2018: 4). 이는 결과나 성과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불확실성 시대를 혁명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근간이 되는 사회정서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 학교 교육이 기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 또는 행복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아로서의 개인이 형성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과 인식을 반영한다(Nes, et al., 2006; Nes & Roysamb, 2015).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가령 2020 UNICEF 아동 웰빙 지수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웰빙 수준은 OECD/EU 38개국 중 34위로 최

하위권이었다. 특히 아동의 웰빙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사회적 관계나 거주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Gromada, et al., 2020). 또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ISA 2018 평가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국가들의 교육 맥락 변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선·김명화·김수진·김현정·이신영, 2021: 230). 더욱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볼 때, 읽기 성취 수준은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학교와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 경쟁에 대한 태도’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이소연·조성민·구남욱·이인화·이신영, 2020: 142). 이러한 지표들에 근거 할 때 과거보다 현저하게 충족된 물질적 또는 경제적 조건과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의 개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생들은 경쟁적인 학교 환경에서 적지 않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에는 초점을 두었지만, 그들이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정서적 역량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소홀했다(유재봉, 2016: 112). 긍정 심리학에서는 학교에서 학업에 관련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Seligman, et al., 2009: 308). 특히 어린 시절의 웰빙 수준이 어른이 된 후의 삶의 만족도와 웰빙 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 (Bellis, et al., 2021)는 우리의 교육이 당장의 학업성취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태도, 다시 말해 주관적 웰빙 증진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의 수준은 삶의 다양한 측면들과 역동적 관계를 지닌다고 한다.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Kansky & Diener, 2017), 학업성취(Yang, et al.,

2019) 및 고용·임금 수준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2013). 국내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냈다. 가령 회복탄력성이 강할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다거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낮음이 보고되고 있다(서경현, 2016; 이상록·김은경·윤희선, 2015; 장영애·이영자, 2015).

한편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매개되고 촉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공동체 관계 속에서 얻는 개인의 언어적 경험 또는 언어를 통해서 습득하고 실천해 온 리터러시(읽고 쓰고 소통하는)의 과정과 결과가 어느 정도는 개인의 삶의 질 또는 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조병영, 2021; Scribner, 1984). 가령 아동의 초기 문해 능력이 향후의 지속적 학업성취뿐만 아니라(Stanovich, 1986), 학업 기간의 행동 및 정서 발달, 성인이 된 후에는 취업이나 고용 등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지표와 긴밀하게 연관됨을 부인하기 어렵다(Smart, et al., 2017).

실제로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이 정신 건강이나 웰빙 수준에도 영향을 주며, 부정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Levickis, et al., 2018; Lloyd, et al., 2018; Stevenson, et al., 2018; Sun, et al., 2020). 읽고 쓰고 소통하는 리터러시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이고(Chang, 2019), 자신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주변에 표현하고 설명하는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Lloyd, et al., 2018).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질수록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부적응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고(Levickis, et al., 2018), 이는 체화된 문화 자본 또는 상징 자본으로 작용하여(Bourdieu, 1984),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나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mala, et al., 2013).

국내에서도 언어와 웰빙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핀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언어 수행 능력이 자아탄력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적응 문제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동이 언어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는 리터러시 행위(와 그것의 삶의 효용)의 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규범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성취에 대한 논의로 좁게 국한된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김수진·홍창희, 2017; 김승경·양계민, 2012; 박주희·남지숙, 2010).

그렇다면 잘 읽고 잘 쓰면 행복해질까? 읽고 쓰고 대화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이 학생들의 자기 삶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까? 리터러시(다양한 언어적, 상징적 기호로 구성된 텍스트를 읽고 쓰면서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의미 구성 과정 또는 사회적 소통의 실제)와 웰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교육 목표 간의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다만 넓게는 교육 연구 분야, 좁게는 국어교육 분야에서 이 둘의 상호 지원 관계(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일은 성장의 교육, 삶의 교육, 그래서 학습자가 개인적·사회적 결실을 거두는 제도화된 공교육의 실질적 효용성을 고민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고자 한다. 비록 이 연구의 질문과 방법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실행된 연구 작업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이를 응집된 이해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아직 명징하게 밝혀지지 않은 두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 1. 리터러시의 확장적 개념

리터러시는 매체의 발달과 사회·경제·문화적 요구에 따라 그 개념역이 확대되어 왔다(옥현진, 2013; 윤여탁, 2015; 정혜승, 2008 등; 조병영, 2020). 국어교육에서는 1980년대 이후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교육은 물론 문학교육과 매체교육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 전반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리터러시를 번역한 다양한 개념어들(문식성과 문해력)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리터러시를 대표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리터러시의 전통적인 개념은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이는 ‘literate’의 사전적 의미가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뜻하고, ‘일상생활에 필요 한 문장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리터러시의 반의어인 ‘illiteracy(문맹)’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리터러시는 단지 전통적 ‘문자’ 또는 줄글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식과 양식의 텍스트를 매개로 펼쳐지는 복잡다단한 표현 및 이해 능력을 뜻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쓰인다(김혜정, 2015: 463). 이와 관련하여 리터러시 용어 사전(국제리터러시협회, n.d.)에서는 ‘Literacy(리터러시)’와 ‘Literacy practices(리터러시 실제 또는 실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Literacy: 다양한 영역과 맥락에 걸쳐서 시각적, 청각적, 디지털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 해석, 창안, 계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터러시는 광범위한 인간 활동에 적용되어 왔는데(가령 컴퓨터 리터러시, 수학 리터러시, 식이 리터러시 등), 이 경우에 리터러시는 특정한 읽기와 쓰기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영역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를 일컫기도

한다.

- Literacy practices: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개인은 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고 개인적 혜택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리터러시의 개념은 전통적으로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었지만, 그러한 능력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미지·영상·매체 등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양식 텍스트로 확대되었다. 행위 면에서도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이해·해석·창작하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리터러시 개념이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에서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로, 최근에는 뉴리터러시(new literacies) 논의로 변모해 온 학문적 흐름과 사회문화적 요구가 있다. 가령 리터러시의 지배적 개념이었던 기능적 리터러시는 근대 역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왔으며, 학교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기능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리터러시를 ‘직업적이고 시민적인 요구,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문자를 다루는 일련의 기능들의 집합’(UNESCO Education Sector, 2004) 정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리터러시 관점은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에서 리터러시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근대 학교 제도의 시작 아래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과 표준화된 읽기-쓰기에 집중해왔던 기능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전개되어 왔다. 가령 프레아리는 글을 읽고 쓰는 일의 원리를 성찰과 실천으로 제시하면서 리터러시의 개념을 ‘단어 읽기(reading the word)’에서 ‘세계를 읽는 것(reading the world)’으로 확장하였다(Freire & Macedo., 1987). 이 관점에서 리터러시

는 축자적인 이해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이념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주체가 스스로를 성찰적으로 경험하며 기존의 정형화된 관습 구조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아울러 인간이 자유로운 의미구성자로서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리터러시와 리터러시 교육의 본질임을 설파하였다. 이러한 해방적 리터러시의 개념은 리터러시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다양한 소통과 협업(또는 경쟁)을 통해 다층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력과 태도로 삶의 관점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언어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대두됨에 따라 뉴런던그룹(The New London Group)은 기존의 리터러시 개념이 갖는 제한성을 극복하는 ‘뉴리터러시’를 제안하였다(Cazden, et al., 1996). 특히 이와 관점을 함께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단수 명사로서의 ‘literacy’가 아니라 복수 명사의 ‘literacies’를 제안하면서 사람이 읽고 쓰고 소통하는 일을 탈맥락적인 행위로 단순 환원하여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담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다양성의 실천 행위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Lankshear & Knobel, 2006; Scribner & Cole, 1981; Street & Street, 1984).

본 연구에서 리터러시를 주관적 웰빙의 문제와 결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리터러시가 좁게는 읽고 쓰는 언어 기능의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그 기능을 익혀 시민으로서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되며, 언어를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하는 데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때 웰빙의 문제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리터러시를 실천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정서적 만족도와 연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는 리터러시가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되어 왔고 읽기나 쓰기와 같은 개념으로 세분화되어 논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에서 리터러시는 ‘문해력’과 ‘문식성’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먼저 ‘문해력(文解力)’은 한자어 뜻을 풀

이하자면 ‘문자를 풀어내는 능력’으로, 주로 ‘초기 문해력’(엄훈, 2017)이나 ‘기초 문해력’(이경화, 2019)과 같은 용례로 쓰인다. 주된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해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한글을 처음 깨우치는 단계나 기초적인 읽기 쓰기를 배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에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도 전술한 리터러시 개념에 닿아있지만, 앞의 용례에서 발견되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으로 축소되는 면이 강하다.

‘문식성(文識性)’은 한자어 뜻을 풀이하자면 ‘문자를 알다’라는 뜻으로 기초 문식성(천경록, 2021), 다문화 문식성(서혁, 2011), 문학 문식성(윤여탁, 2016) 등 학령기 국어교육 연구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성인 문식성(옥현진, 2014)과 같이 학령기 이후 논의에서도 사용되었다. 정혜승(2008 ㄴ)에서는 그간 문식성의 개념이 고정된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으면서 ‘문자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구체적인 대상을 조작하거나 운용하는 기능’ 등 다양한 의미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개념적 연구 작업을 토대로 볼 때, 그간 국어교육에서 문식성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리터러시의 학문적 해석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혜정, 2015; 옥현진, 2013; 원진숙, 2019; 윤여탁, 2015; 정혜승, 2008 ㄱ).

본 연구에서는 ‘문해력’이나 ‘문식성’ 대신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여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문자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모한 실천적 개념을 포괄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문식성과 문해력도 키워드로 포함하여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sup>1)</sup>은 소득이나 고용 상태와 같은 객관적 웰빙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만족도·환희·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경제적 성장이 진행될수록 객관적 웰빙 못지않게 삶의 질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주관적 웰빙이 주목받는다(김형일·유승호, 2016). 그런데 아동의 경우 물리적 여건으로 측정되는 객관적 웰빙이 좋더라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국내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지만(보건복지부, 2021),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아동삶의질조사(ISCWeB) 결과에 의하면 국내 아동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인 31위로 보고되었다(이태윤, 2021). 이는 국내 아동의 경우 객관적 웰빙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 수준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몇몇 연구자들은 주관적 웰빙 개념화를 다각도로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Diener, et. al. (1999)은 주관적 웰빙을 삶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 결과로 설명하였다. 인지적인 평가는 직업, 가족, 건강과 같은 자신의 삶 전반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의미하는 삶의 만족도를 가리킨다. 정서적 평가는 즐거움, 자긍심, 행복과 같은 긍정 정서와 더불어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와도 관련된다. 이렇게 삶의 만족도와 긍·부정적 정서 평가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 주관적 웰빙이라 할 수 있다(Diener, et al., 2002).

또한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인지 및 정서 평가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가령 Cummins,

---

1) 국내에서 '주관적 웰빙'이라는 용어의 웰빙(well-being)은 영문 그대로 '웰빙'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안녕감'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t. al. (2014)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행복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현재적 관점의 행복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인식에 대한 개인적 생각인 회고적 관점의 삶의 만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이수, 2016; Sagiv & Schwartz, 2000).

한편 주관적 웰빙에 대해서는 국제 수준의 대규모 조사를 위한 개념 정의 및 척도 개발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OECD(2013)에서는 주관적 웰빙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주관적 웰빙은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 경험’, ‘유데모니아(eudaimonia)<sup>2)</sup>와 같은 세 차원이 하위 요인으로 설정되었다. 사실 아동 발달 측면에서 주관적 웰빙은 아동의 빈곤, 건강 상태, 교육 및 주거 여건과 같은 물리적 환경만큼이나 아동 발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관적 웰빙 개념과 함께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주관적 웰빙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UNICEF에서는 11-15세 아동을 그 대상으로 상정하고 주관적 웰빙 척도를 개발하였다(Bradshaw, et al., 2013). 이 척도에서는 아동 대상 주관적 웰빙 구성 요소로 삶의 만족도와 같은 경험적 요소와 긍정 및 부정 정서, 유데모니 웰빙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한 아동 대상 주관적 웰빙 측정 지표를 (1) 삶의 만족도, (2) 부모와의 대화 용이성, 학급 친구와의 유대감이나 협력과 같은 관계, (3) 학업 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교육, (4) 건강 관련 신체 증상과 같은 주관적 건강의 4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편차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

---

2)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행복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좋은 삶’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크다. 실제로 일군의 학자들은 이러한 개연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령 학업성취도는 주관적 웰빙과 연계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아시아권 학생들에게 학업성취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청송, 2009; Chang, et al., 2003). 그리고 학생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고(이기혜·김경근, 2013), 회복탄력성(Kelifa, et al., 2021; Meng, et al., 2018)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낙관성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웰빙 수준을 높였다. 그릿<sup>3</sup>의 경우, 학교 만족도나 교우 관계와 같은 교육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정적 관계성이 있거나(Lan & Moscardino, 2019), 또는 그것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된 바 있다(조규영·김승윤, 2021). 그런데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연관성은 주관적 웰빙의 하위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가령 그릿 흥미유지<sup>4</sup>는 삶의 만족도와, 그릿 노력지속<sup>5</sup>은 학교 만족도와의 유의성이 확인되었지만, 이들이 교우관계나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기도 했다(임혜정·유백산, 2021).

### 3. 리터러시와 웰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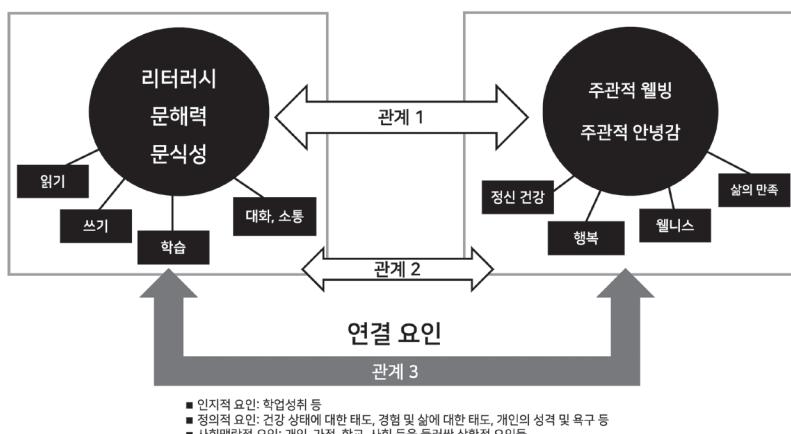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에 대한 대규모 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국립국어원, 2018; 국회미래연구원, 2022; 통계청, 20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ㄱ, 2020 ㄴ, 2021 ㄱ, 2021 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OECD, 2018)를 참고할 때, 개인의 문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는 리터러시

3)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인내하는 마음가짐과 힘

4) 자신의 관심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운용하는 정도

5)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정도

와 주관적 웰빙 사이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대부분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각이 어떻게 서로 다른 개인적·정서적·사회적·환경적 요인과 관계되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아동 및 청소년의 리터러시역량과 주관적 웰빙 관계를 파악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 모형

<그림 1>은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상호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팀의 초기 자료 수집 결과에 따라, 이 두 개념 간의 연관성을 직접 밝힌 연구(관계 1)가 드물다는 가정하에,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인접 개념들의 관계(관계 2)를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이 둘의 형성 요인 또는 구성 요인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의 연결 고리(관계 3)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추론해 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탐구할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질문 1)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질문 2) 연결 요인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다면적 상호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가?

‘질문 1’에 답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관계 1’과 ‘관계 2’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작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체계적 문헌 분석(systematic review) 기법을 채택하여 ‘리터러시, 문해력, 문식성<sup>6)</sup>’과 ‘주관적 웰빙, 주관적 안녕감<sup>7)</sup>’을 주제어로 한 연구 문헌들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문헌 중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핀 문헌은 ‘관계 1’, 리터러시의 인접 개념들과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들<sup>8)</sup> 간의 관계를 살핀 논문은 ‘관계 2’로 분류하여 두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 ‘질문 2’에 답하기 위해 앞의 <그림 1>과 같이 ‘관계 3’을 설정하였다. 리터러시와 다른 요인 간의 관계를 살핀 문헌, 주관적 웰빙과 다른 요인 간의 관계를 살핀 문헌을 각각 선별하여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을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관계 3’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때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추론을 돋는 ‘연결 요인’을 정의하고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사회맥락적(social and contextual)’이라는 세 가지 대범주를 설정하였다. 수집한 문헌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연결 요인들을 추출한 뒤, 대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

- 
- 6) 본고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리터러시’, ‘문식성’, ‘문해력’을 통칭하여 ‘리터러시’라고 명명한다.
  - 7) 마찬가지로 ‘주관적 웰빙’과 ‘주관적 안녕감’을 통칭해 ‘주관적 웰빙’이라고 명명한다.
  - 8) ‘리터러시’의 인접 개념으로는 ‘읽기, 쓰기, 대화, (미디어/비판적...)리터러시’ 등을,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에는 ‘정신 건강, 건강한 삶, 삶의 만족, 웰니스’ 등을 포함하였다.

지 모호한 연구 영역으로 간주되어 있던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 III. 체계적 문헌 연구 기법

이 연구에서는 Alexander(2020)가 제안한 체계적 문헌 연구의 절차를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김사랑·조인선·김은성(2020)에서 실행한 문헌 연구 방법도 참고하였다. 체계적 문헌 연구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그간의 연구들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분석 및 종합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개별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체계적 문헌 연구를 통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에 관한 개별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체계적 문헌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터러시/문해력/문식성(이하 리터러시)’과 ‘주관적 웰빙/주관적 안녕감(이하 주관적 웰빙)<sup>9)</sup>’ 키워드를 각각 검색하였다. 이때 연구 결과의 과정과 결과가 겹증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피기 위해 KCI 우수등재 및 등재 학술지를 검색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검색을 통

- 
- 9) 주관적 웰빙(주관적 안녕감)의 연관어로 ‘심리적 웰빙, 정신적 웰빙’ 등이 검색 키워드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심리적 웰빙’은 주관적 웰빙과 서로 다른 하위 요인구조를 갖는 개념이며, ‘정신적 웰빙’은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웰빙으로 주관적 웰빙과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아동들의 웰빙과 관련한 개념들 중 주관적 웰빙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관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의 동일어인 ‘주관적 안녕감’만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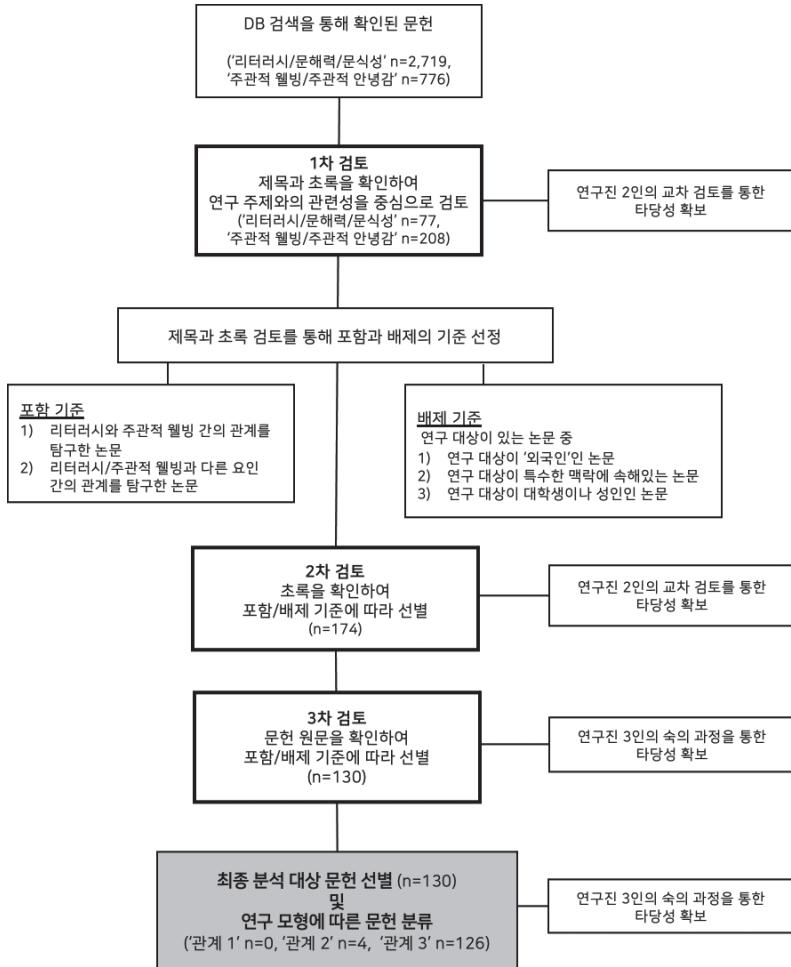
해 확인된 문헌(리터러시 n=2,719, 주관적 웰빙 n=776)에 대한 1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1차 검토는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유무를 중심으로 2인의 연구자가 교차 검토하였다. 이때 해당 키워드의 인접 개념을 다른 문헌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후 1차 검토에서 선별한 논문(리터러시 n=77, 주관적 웰빙 n=208)의 초록을 확인하여 포함 및 배제 기준을 설정하였다. 포함 기준으로는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1)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을 동시에 다룬 논문, 2) 리터러시 혹은 주관적 웰빙과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한 논문을 설정하였고, 배제 기준으로는 실증 연구 중 1) 연구 대상이 외국인인 논문, 2) 연구 대상이 특수한 맥락에 속해있는 논문,<sup>10)</sup> 3) 연구 대상이 대학생이나 성인인 논문을 설정하였다. 다만, 연구 대상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과의 비교를 실행한 논문은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라 2차 검토를 실시하여 총 174편의 논문을 선별하였고, 연구자 3인의 숙의 과정을 통해 3차 검토를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총 130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130편은 모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그림 1]로 제시한 연구 모형에 따라 논문을 관계 1, 2, 3으로 분류하였다('관계 1' n=0, '관계 2' n=4, '관계 3' n=126). 문헌 검색 및 검토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

10) 연구 대상이 다문화 가정 아동이거나 특수교육 대상자거나 소년원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 한다.



〈그림 2〉 문헌 검색 및 검토 절차

연구 모형에 따라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을 관계 1, 2, 3으로 분류한 결과, 예상한 것과 같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논문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이에 따라 관계 3에 해당하는 논문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사이의 연결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3에 포함된 논문들에서 추출한 연결

요인들을 대범주(인지적, 정서적, 사회맥락적)에 따라 분류하고,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계 1, 2, 3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의 분석

이 장에서는 III장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에 따라 선별된 130편의 논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연결 관계인 관계 1, 2, 3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한 후, 연결 요인의 범주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연결 관계에 따른 분석

연구 모형인 <그림 1>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관계 1, 관계 2, 관계 3으로 구분하였다. 관계 1은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 것으로,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들을 살핀 것이다. 관계 2는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3은 ‘리터러시-연결 요인’ 혹은 ‘주관적 웰빙-연결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관계 3의 경우, 한 편의 연구에서 두 요인 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밝힐 순 없지만 연결 요인을 공유하는 연구들을 종합하여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추론적으로 도출하였다.

###### 1) 관계 1: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직접적인 관계 분석

III장에서 제시한 문헌 선별 및 선택 절차에 따라 국내 논문을 추출하

였을 때, 관계 1에 해당하는 논문은 0편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두 요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 간의 관계를 밝히는 관계 2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 2) 관계 2: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 관계 분석

리터러시의 인접 개념으로는 ‘읽기·쓰기·대화·(미디어/비판적...) 리터러시’ 등을,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으로는 ‘정신 건강·건강한 삶·삶의 만족·웰니스’ 등을 포함하였다. 관계 2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4편이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관계 2: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 간의 관계 분석

연번	논문	연구 대상/방법	주요 연구 결과	키워드	
				리터러시	주관적 웰빙
1	김규훈 (2011)	• 연구 방법: 문헌 연구를 통한 자료 분석 및 교육 내용 개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자기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자기 표출과 심리 서술을 도울 수 있음.	글쓰기	자아표출
2	신윤경 (2022)	• 연구 방법: 문헌 연구를 통한 자료 분석 및 교육 내용 개발	감상과 향유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 생활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건강한 삶
3	고영실· 송재홍 (2021)	• 연구 대상: 초 5, 6학년 40명(쓰기부진: 18명, 일반 아동: 22명) • 연구 방법: 독립표본에 의한 t-test	쓰기 부진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자아 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낮음.	쓰기부진	주관적 안녕감
4	김주환· 신우열· 함정현 (2009)	• 연구 대상: 긍정 심리 및 커뮤니티에션 관련 연구 • 연구 방법: 문헌 분석	사람들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부적절한 정보를 더 잘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	의사소통	주관적 안녕감

관계 2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대체로 리터러시와 정신적/심리적 차원의 주관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었다. 고영실·송재홍(2021)은 쓰기 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교를 통해, 쓰기 부진 아동의 주관적 웰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들의 리터러시 능력이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며,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주관적 웰빙 증진의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읽고 쓰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방식의 교육 내용 개발 연구들도 눈에 띄었다. 해당 연구들은 읽고 쓰는 활동이 학습자들의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신윤경(2022)에서 언급한 ‘건강한 삶’은 미디어 생활과 일상생활의 균형 유지 및 미디어 기반의 소통을 통한 건강한 삶 영위를 목표로 한다는 맥락에서 논의된 것으로,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 2로서 4편의 선행 연구를 선별하였으나,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두 요인 간의 상호 관계를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한 연구는 한 편(고영실·송재홍, 2021)에 불과하다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연결 요인’을 설정하여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도출해보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 3) 관계 3: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과 연결요인 간의 관계 분석

관계 3은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상호관계를 직접 규명할 순 없지만, 연결 요인을 공유하는 연구 간의 종합을 통해 이 둘 간의 관계를 추론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총 126편의 논문이 선별되었으며, 그 중 ‘리터러시-연결 요인’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총 16편, ‘주관적 웰빙-연결 요인’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총 110편이었다. 각각의 연구들은 아래의 <표 2>와 <표 3>의 형태로 분석하였으며, 관계 3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연결 요인의 범주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표 2> 관계 3: 리터러시와 연결 요인의 관계 분석 예시**

연번	논문	연구 대상/방법	주요 연구 결과		키워드	연결 요인
			리터러시	언어		
1	옥현진·서수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대상: 초 4-6학년, 762명(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자료)</li> <li>• 연구 방법: 평균치이검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뉴스 리터러시가 높음.</li> </ul>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기반 의사소통	인터넷 포털 이용 형태, 미디어 기반 의사소통	
2	김민자(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대상: 중 1-3학년, 109명</li> <li>• 연구 방법: 시 텍스트 감상문, 설문지 및 개별 면담 자료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시에 표현된 타자의 정서를 이해하며,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이고 청의적으로 표현하고 정서적 반응을 성찰하는 정서작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음.</li> <li>• 현 학습자의 정서적 문식성 중심의 시 감상 양상의 세 가지로 구분됨(텍스트 정보 이해와 표현된 정서 인식/자기-타자 정서의 소통과 정서의 주관화/정서적 반응의 성질과 정서의 표현).</li> </ul>	정서적 문식성 정서 인식		
3	오경선(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방법: 문학 연구를 통해 자료 분석 및 교육 내용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평적 리터러시를 활용할 수 있는 주생활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다양한 계층의 주생활 모습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시민성 향양 가능성이 모색</li> </ul>	비판적 리터러시 시민성		
...	...	...	...	...	...	...

**<표 3> 관계 3: 주관적 웰빙과 연결 요인의 관계 분석 예시**

연번	논문	연구 대상/방법	주요 연구 결과	키워드	
				주관적 웰빙	연결 요인
1	임혜정·유백산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대상: 초 4학년 2,437명 (2018 한국이동청소년페널조사 1·2차 자료)</li> <li>연구 방법: 다층모형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린노력지속과 학교 만족도가 유의적 상관관계</li> <li>그린 흥미유지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적 상관관계</li> </ul>	주관적 웰빙	그린
2	인재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대상: 고등학생 245명</li> <li>연구 방법: 매기효과·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웰빙/행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li> <li>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은 행복감과 정적 상관</li> <li>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이 이중 매개함.</li> </ul>	주관적 웰빙	감사성향, 행복감, 스트레스
3	이기언·최성광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대상: 초 5학년·고2학년, 13,613명</li> <li>연구 방법: 획구분석, 요인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생활(22.2%), 일상적 스트레스(10.7%), 기정생활(4.7%)</li> </ul>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 기정생활, 일상적 스트레스
...	...	...	...	...	...

## 2.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사이의 ‘연결 요인’에 따른 분석

관계 1, 관계 2의 분석을 통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연결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연결 요인을 인지적, 정의적, 사회맥락적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적 차원에는 ‘학업성취’, 정의적 차원에는 ‘그릿’, ‘회복탄력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맥락적 차원에는 개인·가정·학교·사회의 맥락에 따라 ‘삶의 사건’, ‘부모-자녀의 관계’, ‘학교생활’, ‘사회적 참여’ 등이 포함되었다.

관계 3에 해당하는 연구는 총 126편이었으나, 하나의 논문에서 복수의 요인을 추출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경우에는 한 편의 논문일지라도 각 요인을 개별적으로 산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인지적 차원의 연결 요인 분석

〈표 4〉 인지적 차원의 연결 요인 분석 결과

연결 요인	리터러시	주관적 웰빙
학업성취	건강 정보 문해력(안은정 · 권인수, 2014), 문식성(박순길, 2012), 읽기(김경환, 2019)	주관적 안녕감(김영숙 · 조한익, 2015; 소연희, 2007; 안도희 · 김유리, 2012; 윤병준, 2019; 이승연 · 한미리, 2014) 주관적 행복감(김경미 · 염유식 · 박연민, 2013)

먼저, 인지적 차원의 연결 요인을 다룬 논문은 위의 〈표 4〉와 같다. 관계 3에 해당하는 연구들에서 추출한 연결 요인 중 인지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학업성취’ 하나뿐이었다. 김경환(2019)은 중학교 2학년 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과 학업성취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읽기 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리터러시와 ‘학업성취’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웰빙과 학업성취 사이의 상호관계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김영숙·조한익(2015)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2,378명)의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외에 〈표 4〉에 제시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주관적 안녕감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니었으나 국가 단위의 대규모 조사 중 하나인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에서도, 행복감은 학력과 정적 상관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국회미래연구원, 202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학생들의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이 학업성취를 연결 요인으로 하여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정의적 차원의 연결 요인 분석

다음으로 정의적 차원의 연결 요인을 다룬 논문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관계 3에 해당하는 연구에서 추출한 연결 요인 중, 정의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그릿(투지)’, ‘삶의 동기와 기대’, ‘성격 요인’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다시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경험 및 삶에 대한 자세’, ‘개인의 성격 및 욕구’로 범주화하였다.

〈표 5〉 정의적 차원의 연결 요인 분석 결과

범주	연결 요인	리터러시	주관적 웰빙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육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	주관적 웰빙(안수민·김수민, 2021)

범주	연결 요인	리터러시	주관적 웰빙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문화 문식성(김민재, 2020), 어휘 교육(김지연, 2014), 정서적 문식성(김민지, 2021)	삶의 만족도(이기언·최성광, 2021), 웰빙(김정호, 2006), 정서 문제(김진아, 2015), 주관적 안녕감(김민성, 2016; 김태형, 2020 그; 김호진·진미경, 2016; 나기운·은혁기, 2014; 노지운·신나나, 2014; 모화숙·박미라·하대현, 2013; 박소영·이은주, 2019; 박영아, 2010; 손연자·김진숙, 2015; 안도희·김유리, 2012; 유설희·노지운, 2020; 윤병준, 2019; 윤정·김문재·김정섭, 2018; 이소현·도현심·최미경, 2010; 장인경·김진숙, 2021; 조공민·이덕남, 2014; 조한익, 2012; 최미경, 2010; 최수지·김태연·박미화·신효정, 2022; Wu Linyan·오인수·Li Mingji, 2019), 주관적 웰빙(서경현, 2016; 안수민·김현아, 2021; 안재순, 2021; 원두리, 2010), 주관적 행복감(김경미 외, 2013)
개인의 경험 및 삶에 대한 자세	그릿(투지)	-	주관적 웰빙(임혜정·유백산, 2021; 정구철·Jin Yinghua, 2020)
	회복탄력성, 자아탄력성	-	삶에 대한 태도(김혜진·서경현, 2016), 정서 문제(김진아, 2015), 주관적 안녕감(김경민, 2010; 김정이·박영미·이지현·조은주·장신녀, 2016; 김태형, 2020 그; 나기운·은혁기, 2014; 류계라·민하영, 2020; 손연자·김진숙, 2015; 유설희·박보경·도현심, 2020; 임주원, 2019; 조공민·이덕남, 2014; 최현주·박선영, 2015), 주관적 웰빙(서경현, 2016), 행복(성은모·김균희, 2013)
	삶의 동기와 기대	-	주관적 안녕감(신이나·송영명, 2019), 주관적 웰빙(서경현, 2012)
개인의 성격 및 욕구	성격 요인	-	주관적 안녕감(강수희·장석진, 2013; 강형길·최민호, 2015; 고영남, 2019; 구재선·이아룡·서은국, 2009; 김보미·김나리, 2021; 김봉환·김수정, 2014; 노영천·김홍석, 2012; 모화숙 외, 2013; 박지혜·김근향·고영건, 2014; 백혜영·강현아, 2019; 선영운, 2021 그; 신현숙, 2008; 유슬기·방희정, 2011; 임다영·안도희, 2013; 정규석·박선희, 2010; 정소연·김근영, 2014; 조수아·권석만·임영진, 2011; 최순미·정문경, 2019; 허윤석·손원숙, 2013; 허재홍, 2012; 허재홍·오충광, 2014)
	기본 심리욕구	-	주관적 웰빙(김혜진·유미숙, 2017; 신현숙, 2007 그, 2007 그; 이희진·박영애, 2020; 정구철·Jin Yinghua, 2020)

분석 결과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가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을 연결해주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리터러시 -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주로 문학교육과 어휘교육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김민재(2020)와 김민지(2021)에서는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지영(2014)은 정서어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관적 웰빙 -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심리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안수민·김현아(2021)는 문헌 분석을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자신의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가 주관적 웰빙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서경현(2016), 안재순(2021)에서는 양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이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원두리(2010)는 자신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적응적 대처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가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를 연결 요인으로 하여,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추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만으로는 정의적 차원의 다른 요인들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리터러시 - 개인의 경험 및 삶에 대한 자세’와 ‘리터러시 - 개인의 성격 및 욕구’의 관계를 밝힌 국내 연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험 및 삶에 대한 자세’가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사이를 연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니었으나, 조종열·이임숙(2004)은 초등학생 4학년 83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 및 독서 활동이 학업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접적으로 ‘그릿’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릿의 하위 요인인 ‘흥미 유지’가

‘학업 효능감’과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표 5〉의 공백을 설명할 수 있다.

더하여 ‘그릿’과 리터러시의 관계를 밝힌 국외 연구에서도 그 가능성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튀르키예의 초등학교 4학년 582명을 대상으로 한 Bozgün, et al. (2021)는 학문적 그릿(academic grit)이 학습자들의 사회 - 정서 적 발달<sup>11)</sup>과 읽기·쓰기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따라서 〈표 5〉의 공백은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이 무관함을 보여주는 논리 적 공백이 아니라 아직 탐구되지 않은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3) 사회맥락적 차원의 연결 요인 분석

마지막으로 사회맥락적 차원의 연결 요인을 다룬 논문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관계 3에 해당하는 연구에서 추출한 연결 요인 중 사회맥락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삶의 사건’, ‘부모 - 자녀의 관계’, ‘학교생활’, ‘사회적 참여’ 등이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맥락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6〉 사회맥락적 차원의 연결 요인 분석 결과

범주	연결 요인	리터러시	주관적 웰빙
개인	삶의 사건	-	주관적 웰빙(안수민 · 김현아, 2021)
	정체감	문화성(옥현진, 2009), 문식 활동(옥현진, 2017)	주관적 안녕감(구경호 · 김석우, 2014), 주관적 웰빙(이명숙, 2013)
	인터넷/ 미디어 사용 <sup>12)</sup>	뉴스 리터러시 (옥현진 · 서수현, 2022)	웰니스(전경란, 2016), 정신 건강(추병완, 2019), 주관적 안녕감(김경옥 · 조강원, 2022; 김의철 · 박영신 · 탁수연 · 김정희 · 오미선, 2013; 조정윤 · 황의감, 2020)
	게임중독	-	주관적 웰빙(서경현, 2013)

11)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 - 정서적 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을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주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행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범주	연결 요인	리터러시	주관적 웰빙
가정	가정생활	-	삶의 만족(오영수·이재영, 2014; 이기언·최성광, 2021), 삶에 대한 태도(김혜진·서경현, 2016), 주관적 안녕감(백혜영·강현아, 2019; 장유진·권윤정, 2017, 최현주·박선영, 2015), 행복(성은모·김균희, 2013)
	가족기능	-	주관적 안녕감(구경호·김석우, 2014; 김혜진·유미숙, 2017; Wu Linyan 외, 2019), 주관적 웰빙(이명숙, 2013)
	양육태도	-	정적 안녕감(윤경희·이숙, 2016), 주관적 안녕감(강금주·신현숙, 2015; 김경민, 2010; 김태형, 2020-; 배주영·도현심·이선희·신정희, 2015; 송미라·한기백, 2015; 위보람·한기백, 2020; 이소현 외, 2010; 이희진·박영애, 2020; 정소연·김근영, 2014; 주지영·박성연, 2013; 추연구·최효식, 2021)
	부모-자녀 관계	-	심리적 안녕감(이유정·원성준, 2021), 정적 안녕감(배지아·도현심·박보경·김민정, 2016), 주관적 안녕감(강수희·장석진, 2013; 고영남, 2019; 김광선·이홍직, 2015; 김미주·방희정, 2012; 김보미·김나리, 2021; 노영천·김홍석, 2012; 박소영·이은주, 2019; 선영운, 2021-; 유슬기·방희정, 2011; 장인경·김진숙, 2021; 정규석·박선희, 2010; 최수지 외, 2022; 최아라, 2021)
	경제적 여건	미디어 리터러시 (안정임·서윤경, 2014), 광고 리터러시 (안순태, 2015)	주관적 웰빙(김명숙, 2016; 김진석·황경란·양영미, 2017), 주관적 안녕감(김광선·이홍직, 2015; 김수정, 2022; 김영주·나진경, 2018; 윤병준, 2019), 행복(성은모·김균희, 2013; 조동훈, 2017)
	부모의 교육 수준	-	주관적 웰빙(김명숙, 2016), 주관적 행복감(김경미 외, 2013)
학교	학교생활	-	삶에 대한 태도(김혜진·서경현, 2016), 삶의 만족(이기언·최성광, 2021; 오영수·이재영, 2014), 자존감/우울(정현옥·김희숙, 2014), 주관적 안녕감(강수현·이동형, 2021; 고영남, 2018; 구재선·서은국, 2015; 김순규·최혜정·박신애, 2012; 박소영·이은주, 2019; 신현숙, 2017-; 이승연·한미리, 2014; 장유진·권윤정, 2017), 주관적 행복감(김경미 외, 2013)
	친구관계	-	주관적 안녕감(김태형, 2020-; 2020-; 나기은·은혁기, 2014; 박정배·송병국, 2011; 배민영·신현숙, 2016; 배민영·신현숙, 2015, 배민영, 2017; 배주영 외, 2015; 유설희 외, 2015; 이은주·염혜선, 2020; 정규석·박선희, 2010)
	교사관계	-	주관적 안녕감(김태형, 2020-; 2020-; 박정배·송병국, 2011; 배주영 외, 2015; 신현숙, 2017-; 정규석·박선희, 2010)

범주	연결 요인	리터러시	주관적 웰빙
사회	사회적 참여	기록화(강진주·고은경, 2018), 뉴미디어리터러시(박형빈, 2018), 비판적 리터러시(오경선, 2021), 읽기(안부영, 2010), 지식정보처리역량(최현희·정문성, 2018)	주관적 안녕감(김수정, 2022), 주관적 웰빙(김진석·황경란·양영미, 2017)
	지역사회 환경	-	주관적 안녕감(장지현, 2018), 행복(성은모·김균희, 2013)

먼저 개인 범주의 ‘정체감’을 연결 요인으로 두었을 때, ‘리터러시 - 정체감’의 관계와 ‘주관적 웰빙 - 정체감’의 관계가 모두 확인된다. 옥현진(2009, 2017)은 ‘리터러시 - 정체감’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구성 활동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것이 문식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두 요인 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한편, ‘주관적 웰빙 - 정체감’의 관계는 이명숙(2013) 등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 정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총체적 관점에서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로 개인 범주의 ‘인터넷/미디어 사용’을 연결 요인으로 두었을 때, ‘리터러시 - 인터넷/미디어 사용’의 관계와 ‘주관적 웰빙 - 인터넷/미디어 사용’의 관계가 모두 확인된다. 옥현진·서수현(2022)은 ‘리터러시 - 인터넷/미디어 사용’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대규모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높은 학생일수록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다는 경향성을 밝혔다. ‘주관적 웰빙 - 인터넷/미디어 사용’의 관계는 전경란(2016)과 추병완(2019) 등에서 확인된다. 전자는 정신 건강과 소셜 미디어 사용의 관계를 초점 집단 인터뷰를 통해 밝혔으며, 후자의 연구

12)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터넷 및 미디어 사용’ 요인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와 같이 개인의 미디어/디지털 활용 능력을 살핀 것이 아닌, 타인과의 소통을 기본 전제로 하는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맥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는 정서적·사회적 웰니스와 소셜 미디어 사용의 관계를 문헌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미디어 사용은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의 증대 혹은 자기표현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웰니스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한편 불안감 증대와 소셜 미디어 중독, 스트레스 유발 등을 통해 정신건강/웰니스와 부정적으로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연결 요인으로 두었을 때, ‘리터러시-경제적 여건’의 관계와 ‘주관적 웰빙-경제적 여건’의 관계가 모두 확인된다. ‘리터러시-경제적 여건’의 관계의 경우, 안정임·서윤경(2014)과 안순태(20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전자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 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를 통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공통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광고 리터러시의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주관적 웰빙-경제적 여건’의 관계는 김명숙(2016), 김진석 외(2017), 조동훈(2017)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조동훈(2017)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소득·실업·상대적인 사회적 지위의 경제적 요인이 행복수준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김명숙(2016)은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자녀의 주관적 웰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김진석 외(2017)에서도 9-18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범주의 ‘사회적 참여’를 연결 요인으로 두었을 때, ‘리터러시-사회적 참여’의 관계와 ‘주관적 웰빙-사회적 참여’의 관계가 모두 확인된다. ‘리터러시-사회적 참여’의 관계의 경우 안부영(2010), 강진주·고은경(2018), 박형빈(2018), 오경선(202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네 편의 연구는 모두 문헌 연구를 토대로 교육 내용을 개발한 것으로, 리터러시 활동이 개인적 과정이 아닌 사회적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에 방점을 둔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시민성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최현희·정문성(201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식정보처리역량이 개인시민성·공동체시민성·세계시민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주관적 웰빙-사회적 참여’의 관계는 김진석 외(2017)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주관적 웰빙-경제적 여건’의 관계를 밝힌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아동의 ‘사회적 참여’가 경제적 빈곤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부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개인, 가정, 사회 범주의 연결 요인들을 통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에서는 학교 범주로 분류된 요인들이 연결 요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주관적 웰빙-학교생활’의 관계를 밝힌 연구만 존재할 뿐, ‘리터러시-학교생활’의 관계를 다룬 국내의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외 연구 등을 통해 연결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핀란드의 유치원생 461명을 대상으로 한 Pakarinen, et al. (2020)에서는 유치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들의 리터러시 능력과 유의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교생활’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제한점

###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점

이 연구에서는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 규명을 위해 각 요인의 인접 개념과 두 요인을 매개하는 연결 요인을 설정하여 체계적 문헌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각각의 인접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의 개념이나 다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7>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들

리터러시	건강 정보 문해력, 광고 리터러시, 글쓰기, 기록화, 뉴미디어리터러시, 뉴스리터러시, 문식성, 문식활동, 문학 문식성, 미디어, 비판적 리터러시, 쓰기부진, 어휘교육, 의사소통, 읽기, 정서적 문식성, 지식정보처리역량
주관적 웰빙	건강한 삶, 삶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웰니스, 웰빙, 자아표출, 정서문제(자존감, 우울), 정신건강, 정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이와 같은 핵심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서론에 제시한 연구 모형에 따라 문헌들을 선별 및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논문(관계 1)은 국내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리터러시의 인접 개념들과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들 간의 관계를 밝힌 논문(관계 2)은 4편으로, ‘글쓰기 - 자아표출’, ‘미디어 리터러시 - 건강한 삶’, ‘쓰기부진 - 주관적 안녕감’, ‘의사소통 -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쓰기 부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헌 연구를 수행한 논문으로 리터러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과 연결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설정한 관계 3의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리터러시와 연결 요인 간의 관계를 밝힌 문헌은 총 16편으로, 8편은 설문 응답 결과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였고, 8편은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였다. 양적 연구는 리터러시 · 문해력 · 문식성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뉴스 리터러시 · 미디어

리터러시 등 특정 영역의 리터러시나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육 내용 개발 목적의 연구들은 연구에서 설계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개념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다면적인 리터러시 개념 그 자체와 다른 요인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매우 적으며, 교육의 맥락에서 리터러시 수업을 고안하고 학생들을 표집하여 리터러시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관적 웰빙과 연결 요인 간의 관계를 밝힌 논문은 총 110편으로, 그중 103편이 검사 및 설문지 응답 결과를 분석한 양적 연구였으며, 6편이 문헌 연구, 1편이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연구였다. 주관적 웰빙에 대한 논문들은 양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양적 분석 결과에 대한 다층적인 논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상태를 확인하는 것,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양적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양적, 질적 분석에 기반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결 요인들을 인지적, 정의적, 사회맥락적으로 분류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8><sup>13)</sup>과 같다.

〈표 8〉 연결 요인의 분류

인지적 요인	학업성취	
정의적 요인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육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개인의 경험 및 삶에 대한 자세	그릿(투지), 회복탄력성/자아탄력성, 삶의 동기와 기대
	개인의 성격 및 욕구	성격요인, 기본심리욕구

13)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연결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을 볼드체로 표기하였다.

인지적 요인	학업성취	
사회 맥락적 요인	개인	삶의 사건, 정체감, 인터넷/미디어 사용, 게임중독
	가정	가정생활, 가족기능,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경제적 여건, 부모의 교육 수준
	학교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관계
	사회	사회적 참여, 지역사회 환경

선별한 문헌을 중심으로 도출한 연결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지적 요인에 비해 정의적 요인의 수가, 정의적 요인에 비해 사회맥락적 요인의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사이의 연결 요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인지적 요인에서 ‘학업성취’, 정의적 요인에서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사회맥락적 요인에서 ‘정체감, 인터넷 및 미디어 사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통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이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관계 1, 2, 3의 분류와 분석을 통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유의미한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 2.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리터러시(문해력, 문식성)’와 ‘주관적 웰빙(주관적 안녕감)’ 간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고, ‘연결 요인’을 설정하여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가시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가진 분명한 제한점도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에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그리고 연결 요인 간의 방향성(즉,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

을 면밀히 조사하는 체계적 문헌 연구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리터러시 및 주관적 웰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논의되고 탐구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연결 요인’을 설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상호관계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추론을 통해 확인하였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연구자 간의 교차 검토 및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제시된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추론을 도모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논의된 연결 요인 이외에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연결 요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 선별한 논문에서 추출한 요인들만을 ‘연결 요인’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2023.01.31. 투고되었으며, 2023.02.12. 심사가 시작되어 2023.03.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저자명 앞에 \* 표시가 되어 있는 논문은 체계적 문헌 분석 대상 논문임)

- \*강광연·전제상(2018), 「아동이 지각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891-907.
- \*강금주·신현숙(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대인관계민족의 중다매개효과」, 『아동교육』 24(4), 105-122.
- \*강수현·이동형(2021),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교풍토의 조절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9(3), 1-26.
- \*강수희·장석진(2013),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395-2416.
- \*강진주·고은경(2018), 「유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써 기록화의 가능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751-774.
- \*강형길·최민호(2015), 「청소년의 강도별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와 즐거움, 시간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여가크레이션학회지』 39(4), 56-70.
- \*고영남(201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4(4), 115-135.
- \*고영남(2019),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1325-1345.
- \*고영실·송재홍(2021), 「쓰기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쓰기 수행과 신념 및 삶의 질 비교」, 『학습장애연구』 18(3), 99-125.
- \*구경호·김석우(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6), 281-307.
- \*구재선·서은국(2015), 「청소년의 내재적 가치 지향과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미래 행복의 관계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317-338.
- \*구재선·이아룡·서은국(2009), 「행복의 사회적 기능」, 『문화및사회문제』 15(1), 29-47.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립국어원(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국제리터러시협회(n.d.), 리터러시 용어 사전, 검색일자 2022. 11. 2., 사이트주소 <https://www.literacyworldwide.org/get-resources/literacy-glossary>.
- 국회미래연구원(2022),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김경미·염유식·박연민(2013),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36-247.
- \*김경민(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 문화포럼』 25, 39-74.
- \*김경옥·조강원(2022), 「청소년의 SNS 이용 동기와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

- 냉감의 매개효과』,『청소년복지연구』24(1), 95-116.
- \*김경환(2019),『읽기 능력과 학업성취의 상관관계 연구』,『리터러시 연구』10(3), 431-466.
- \*김광선·이홍직(2015),『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웰니스학회지』10(2), 71-80.
- \*김규훈(2011),『열린문학교육에서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리터러시 연구』3, 205-235.
- \*김명숙(2016),『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부모의 주관적 웰빙과 자율성 지지 양육의 매개효과를 통해 자녀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교육과정평가연구』19(1), 275-301.
- \*김미주·방희정(2012),『남녀 중학생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한국심리학회지 여성』17(4), 597-621.
- \*김민성(2016),『우리나라 아동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아동교육』25(2), 5-24.
- \*김민재(2020),『문학 문식성 개념의 역할과 방향』,『청람어문교육』73, 161-187.
- \*김민지(2021),『정서적 문식성 중심의 시 감상교육 연구』,『선청어문』48, 103-140.
- \*김보미·김나리(2021),『초등학생의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청소년학연구』28(10), 31-55.
- \*김봉환·김수정(2014),『고등학생의 완벽주의와 우유부단에 따른 군집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상담학연구』15(6), 2361-2378.
- 김사랑·조인선·김은성(2020),『국어 문법 교사 관련 연구 동향 분석』,『교과교육학연구』24(2), 154-166.
- \*김수정(2022),『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35(1), 29-58.
- 김수진·홍창희(2017),『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청소년학연구』24(1), 195-211.
- \*김순규·최혜정·박선애(2012),『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학』64(4), 189-207.
- 김승경·양계민(2012),『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중언어 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19(11), 147-176.
- \*김영숙·조한익(2015),『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교육심리연구』29(4), 845-871.
- \*김영주·나진경(2018),『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한국심리학회지 일반』37(3), 313-347.
- \*김의철·박영신·탁수연·김정희·오미선(2013),『청소년의 사이버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친구 관계, 주관적 안녕감과 학업성취도』,『문화및사회문제』19(2), 285-318.
- 김이수(2016),『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57-180.
- \*김정이·박영미·이지현·조은주·장선녀(2016),『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한국학교보건학회지』29(3), 235-244.

- \*김정호(2006), 「동기상태이론: 스트레스와 웰빙의 통합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453-484.
- \*김주환·신우열·함정현(2009), 「행복은 우리를 통(通)하게 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5(1), 86-122.
- \*김지영(2014), 「정서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정서 어휘 교육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49, 321-345.
- \*김진석·황경란·양영미(2017),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아동의 주관적 웰빙 간 관계」, 『아동과 권리』 21(2), 227-244.
- \*김진아(201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3), 359-377.
- 김청송(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태형(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분석」, 『GRI 연구논총』 22(2), 167-199.
- \*김태형(2020-), 「청소년의 관계적 특성과 청소년활동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62, 81-119.
- 김형일·유승호(2016), 「더 나은 삶 지수'에서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9(1), 65-90.
- 김혜정(2015), 「문식성 발달 이론과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 문식성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연구』 36, 463-493.
- \*김혜진·서경현(2016), 「중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3(6), 297-316.
- \*김혜진·유미숙(201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8(2), 185-201.
- \*김효진·진미경(2016),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3), 443-466.
- \*나기은·은혁기(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또래관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1), 75-91.
- \*노영천·김홍석(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2625-2640.
- \*노지운·신나나(2014),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적 사고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5(3), 137-156.
- \*류계라·민하영(2020),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5(3), 49-66.
- \*모화숙·박미라·하대현(2013),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7(3), 761-781.
- \*박소영·이은주(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 경쟁성, 부모와 자신의 사회비교 경향성,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33(2), 235-256.

- \*박순길(2012), 「학습부진아동의 문식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2), 27-51.
- \*박영아(2011),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107-120.
- \*박정배·송병국(2011),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2(4), 187-213.
- 박주희·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박지혜·김근향·고영건(2014), 「한부모가정 및 일반가정 청소년의 불안,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2), 115-144.
- \*박형빈(2018), 「편향 극복과 성찰을 위한 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등 통일인성교육 방안」, 『초등도덕교육』 60, 253-285.
- \*배민영(2017),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변화 양상 및 예측요인」, 『아동교육』 26(2), 207-223.
- \*배민영·신현석(2016),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5(3), 193-209.
- \*배민영·신현숙(2015), 「친구관계의 질이 사회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4(3), 177-197.
- \*배주영·도현심·이선희·신정희(201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6), 59-83.
- \*배지아·도현심·박보경·김민정(2016),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2), 111-125.
- \*백혜영·강현아(2019),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155-187.
- 보건복지부(2021.6.28.),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검색일자 2022.11.3., 사이트주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699>
- \*서경현(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청소년학연구』 19(12), 137-157.
- \*서경현(2013), 「남자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스트레스 반응, 주관적 웰빙 및 삶에 대한 동기 및 기대」, 『청소년학연구』 20(2), 217-236.
- \*서경현(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및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11), 137-157.
- \*서경현·김혜경·박은선(2014),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자존감, 우울, 삶의 만족감 및 주관적 건강」, 『청소년학연구』 21(8), 293-316.
- 서혁(2011),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연구』 48, 1-20.
- \*선영운(2021 ㄱ), 「아동의 부모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0(3), 275-288.
- \*선영운(2021 ㄴ), 「초등학생의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의 역할」, 『초등상담연구』 20(4), 351-367.

- \*성은모·김군희(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소연희(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4), 1007-1028.
- \*손연지·김진숙(2015),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6), 425-445.
- \*송미라·한기백(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 \*신윤경(2022), 「감상과 향유 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연구」, 『새국어교육』 131, 209-236.
- \*신이나·송영명(2019),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학업동기 프로파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25-152.
- \*신현숙(2008), 「도움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 및 친사회적 반응」, 『청소년학연구』 15(6), 65-87.
- \*신현숙(2017ㄱ), 「교사가 학급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맥락과 중학생이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희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9), 177-204.
- \*신현숙(2017ㄴ),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맥락과 학업유능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아동교육』 26(2), 41-65.
- \*안도희·김유리(2012), 「기대 및 가치 신념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3), 293-319.
- \*안부영(2010), 「사회적 문식성에 기반한 읽기 교육에 대한 시론」, 『독서연구』 23, 41-69.
- \*안수민·김현아(2021), 「코로나시대 주관적 웰빙의 개념분석」,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0(2), 171-183.
- \*안순태(2015), 「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 광고 리터러시」, 『한국방송학보』 29(2), 116-148.
- \*안은정·권인수(2014), 「초등학생의 건강정보문해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4), 322-331.
- \*안재순(2021),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의 이중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762-770.
- \*안정임·서윤경(201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세부요인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69-78.
- 엄훈(2017), 「초기 문해력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국어교육』 63, 83-109.
- \*오경선(2021), 「비판적 리터러시를 통한 시민성 함양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3(2), 57-80.
- \*오영수·이재영(2014), 「중, 고등학생의 행복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교육연구』 21(2), 1-31.
- \*옥현진(2009),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35, 361-386.
- 옥현진(2013), 「문식성 재개념화와 새로운 문식성 교수·학습을 위한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

- 육』 47, 61-86.
- \*옥현진(2014), 「성인문식성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46, 225-249.
- \*옥현진(2017), 「문식 활동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청람어문교육』 63, 67-88.
- \*옥현진·서수현(2022),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뉴스 리터러시 특성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73, 157-179.
- \*원두리(2010), 「인지적 및 정서적 마음챙김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427-443.
- 원진숙(2019), 「미래 사회 대비 국어 문식성 교육의 역할과 과제」, 『새국어교육』 118, 7-41.
- \*위보람·한기백(2020),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세대 간 전이」, 『청소년학연구』 27(2), 385-412.
- \*유설희·노지운(2020),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1(2), 91-121.
- \*유설희·박보경·도현심(2015),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6(2), 55-74.
- \*유성경·박은선·김수정·조효진(2014),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441-465.
- \*유슬기·방희정(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인간발달 연구』 18(2), 169-185.
- 유재봉(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 \*윤경희·이숙(2016), 「청소년의 기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4), 803-815.
- \*윤병준(2019),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건강관련 행위의 관련성」, 『대한보건연구』 45(1), 11-22.
- 윤여탁(2015),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36, 535-561.
- 윤여탁(2016), 「문학 문식성의 본질, 그 가능성을 위하여」, 『문학교육학』 51, 155-176.
- \*윤정·김문재·김정섭(2018), 「고등학생의 시간압박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49-69.
- 이경화(2019), 「기초 문해력과 읽기 부진 지도」, 『청람어문교육』 71, 223-245.
- 이기혜·김경근(2013), 「중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3), 139-168.
- \*이기언·최성광(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고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2), 171-182.
- \*이명숙(2013),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가족기능 및 진로정체감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20(4), 151-174.
- 이소연·조성민·구남욱·이인화·이신영(2020), 「PISA 2018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의 성취 특성 분석: 성취수준별 특성 및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 특성을 중심으로(RRE 2020-

- 7),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소현·도현심·최미경(2010),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아동학회지』 31(3), 255-272.
- \*이승연·한미리(2014), 「정신건강 2요인 모델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참여와 학업성취」, 『청소년 학연구』 21(10), 195-218.
- \*이유정·원성준(2021),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공존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학업 성취에서의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35(4), 583-607.
- \*이은주·염혜선(2020),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과 주관적 안녕감, 대인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3), 263-286.
- 이상록·김은경·윤희선(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태윤(2021.6.19.), 내일 아침 안됐으면 좋겠어 韓아동 삶의 질 35개국 중 31위, 중앙일보, 검색 일자 2022. 11. 3., 사이트 주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6090#home>
- \*이희진·박영애(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의 아동의 자기결정성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3(2), 163-180.
- \*임다영·안도희(2013), 「청소년의 열망 군집 유형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학업성취 및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심리적 특성」, 『교육심리연구』 27(3), 673-698.
- \*임주원(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2), 67-75.
- \*임혜정·윤백산(2021),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초록우산어린이재단(편)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서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장영애·이영자(2015),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4), 147-156.
- \*장유진·권윤정(2017), 「아동의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자기회귀교차 지연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2(2), 75-87.
- \*장인경·김진숙(2021),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낙관 성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 115-144.
- \*장지현(2018),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 사회21』 9(2), 351-364.
- \*전경란(2016),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와 웰니스」, 『한국웰니스학회지』 11(4), 75-87.
- \*정구철·Jin Yinghua(2020), 「기본심리욕구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투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397-407.
- \*정규석·박선희(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사회과학연구』 26(1), 433-452.
- \*정소연·김근영(2014), 「아동의 개방성, 양육태도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 학회』 15(3), 1375-1381.

- \*정현옥·김희숙(2014), 「또래관계증진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자존감, 집단따돌림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3), 133-141.
- 정혜승(2008 그), 「문식성(literacy) 교육의 쟁점 탐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1(1), 161-185.
- 정혜승(2008 둘),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 26(4), 149-172.
- \*조공민·이덕남(2014),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2(4), 57-74.
- 조규영·김승윤(202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 및 또래관계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 23-47.
- \*조동훈(2017),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노동경제논집』* 40(3), 79-104.
- 조병영(2020), 「뉴리터러시와 전환적 의미 디자인」, *『국어교육』* 171, 31-70.
- 조병영(2021),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서울: 챕앤파커스.
- \*조수아·권석만·임영진(2011), 「용서신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1-19.
- \*조정윤·황의갑(2020), 「스마트폰중독과 게임중독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서 비행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9(1), 297-328.
- 조중열·이임숙(2004),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 독서, 학업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인과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17(1), 127-144.
- \*조한익(2012), 「초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성취정서,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6(4), 1001-1021.
- \*주지영·박성연(2013),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21-38.
- 천경록(2021), 「기초문식성 관련 연구의 실태와 쟁점 탐구」, *『한국초등국어교육』* 72, 257-287.
- \*최미경(2010),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0), 65-75.
- \*최수지·김태연·박미화·신효정(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엘리스학회지』* 17(2), 319-328.
- \*최순미·정문경(2019), 「부정적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5), 145-154.
- \*최아라(2021),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2(2), 279-292.
- 최인선·김명화·김수진·김현정·이신영(2021),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상위국 성취특성 및 교육맥락변인과의 관계 분석(RRE 2021-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현주·박선영(2015),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 *『청소년복지연구』* 17(2), 81-105.
- \*최현희·정문성(2018), 「초등학교 학생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

- 민교육연구』50(1), 171-189.
- \*추병완(2019),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학생의 정신 건강」, 『초등도덕교육』66, 181-212.
- \*추연구·최효식(2021),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22(10), 334-345.
- 통계청(2022), 『국민 삶의 질』, 서울: 통계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ㄱ),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고등학교 국어』,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ㄴ),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중학교 국어』,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ㄱ),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고등학교 국어』,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ㄴ),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중학교 국어』,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윤석·손원숙(2013), 「초등학생의 조절조절 프로파일별 학습자 특성 분석」, 『교육심리연구』27(1), 201-220.
- \*허재홍(2012), 「긍정정서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13(1), 31-46.
- \*허재홍·오충광(2014), 「부정정서 경험빈도와 경험회피가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15(6), 2401-2415.
- Alexander, P. A. (2020). "Methodological guidance Paper: The art and science of quality systematic review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90(1), 6-23.
- Bellis, M. A., Hughes, K., Jones, A., Perkins, C., & McHale, P. (2013). "Childhood happiness and violence: a retrospective study of their impacts on adult well-being", *BMJ open* 3(9), 1-10.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zgün, K., & Akın-Kösterlioğlu, M. (2021), "The Roles of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cademic Gri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rimary School Students' Reading-Writing Motivation", *Reading Psychology* 42, 836-857.
- Bradshaw, J., Martorano, B., Natali, L., & De Neubourg, C.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Child Indicators Research* 6, 619-635.
- Cazden, C., Cope, B., Fairclough, N., Cook, J., Gee, J., Kalantzis, M., Kress, G., Luke, A., Luke, C., Michaels, S., & Nakata, M.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2.
- Chang, C. D. (2019),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among immi-

- grants and their children”, *Current Problems in Pediatric and Adolescent Health Care* 49(1), 23-30.
- Chang, L., McBride-Chang, C., Stewart, S. M., & Au, E. (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7(2), 182-189.
- Cummins, R. A., Li, N., Wooden, M., & Stokes, M. (2014), “A demonstration of set-points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183-206.
- Diener, E. (2013), “The remarkable changes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6), 663-666.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 63-7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Freire, P., & Macedo, D. (1987),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Westport, CT: Bergin & Garvey.
- Gromada, A., Rees, G., & Chzhen, Y.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Innocenti Report Card No. 16*,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 Kansky, J., & Diener, E. (2017), “Benefits of well-being: Health, social relationships, work, and resilience”, *Journal of Positive School Psychology* 1(2), 129-169.
- Kelifa, M. O., Yang, Y., Carly, H., Bo, W., & Wang, P. (2021), “How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relate to subjective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resilie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2(5), 2103-2123.
- Lan, X., & Moscardino, U. (2019), “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perceive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grit on student wellbeing among stay-behind early adolescents in urban China”,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69, 129-137.
- Lankshear, C., & Knobel, M. (2006), *New literacies: Everyday practices and classroom learning*,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 Levickis, P., Sciberras, E., McKean, C., Conway, L., Pezic, A., Mensah, F. K., & Reilly, S. (2018), “Language and social-emotional and behavioural wellbeing from 4 to 7 years: a community-based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7), 849-859.
- Meng, X., Fleury, M. J., Xiang, Y. T., Li, M., & D'arcy, C. (2018),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people with a history of child maltreatment: A systematic review”,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3(5), 453-475.
- Nes, R. B., Røysamb, E., Tambs, K., Harris, J. R., & Reichborn-Kjennerud, T. (2006), “Subjective well-being: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stability and

- change”, *Psychological Medicine* 36(7), 1033.
- Nes, R.B., & Roysamb, E. (2015), “The herit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Review and meta-analysis”. In M. Pluess(Ed.), *The Genetic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heritability and genetics in positive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8),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Paris: OECD Publishing.
- Ozturk, E., & Mohler, J. L. (2021). “Childhood advers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or role of perceived resilience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Trauma, Child Custody & Child Development* 18(2), 121-138.
- Pakarinen, E., Lerkkanen, M. K., Viljaranta, J., & von Suchodoletz, A. (2021), “Investigating bidirectional links between the quality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interest and pre-academic skills in literacy and math”, *Child development* 92(1), 388-407.
- Penttinen, V., Pakarinen, E., von Suchodoletz, A., & Lerkkanen, M. K. (2020), “Relation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Occupation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1(7), 994-1010.
- Sagiv, L., & Schwartz, S. H. (2000), “Value prior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rect relations and congruity eff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2), 177-198.
- Scribner, S., & Cole, M. (1981), *The psychology of litera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ribner, S. (1984), “Literacy in three metaphor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3(1), 6-21.
- Seligman, M., Ernst, R., Gillham, J., Reivich, K., & Linkin, M. (2009),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 293-311.
- Smala, S., Paz, J. B., & Lingard, B. (2013), “Languages, cultural capital and school choice: Distinction and second-language immersion programm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4(3), 373-391.
- Smart, D., Youssef, G. J., Sanson, A., Prior, M., Toumbourou, J. W., & Olsson, C. A. (2017), “Consequences of childhood reading difficulties and behaviour problems for educational achievement and employment in early adulthoo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2), 288-308.
- Stanovich, K. 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2, 360-407.
- Stevenson, J., Pimperton, H., Kreppner, J., Worsfold, S., Terlektsei, E., Mahon, M., & Kennedy, C. (2018), “Language and reading comprehension in middle childhood predicts emotional and behaviour difficulties in adolescence for those with permanent childhood hearing lo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9(2), 180 - 190.
- Street, B. V., & Street, B. B. (1984),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Vol. 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n, J., Schwartz, H. A., Son, Y., Kern, M. L., & Vazire, S. (2020), “The language of well-being: Tracking fluctuations in emotion experience through everyday spee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8(2), 364.
- UNESCO Education Sector(2004), *The plurality of lite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programs*, Paris: United National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HO(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In C. Currie, C. Zanotti, A. Morgan, D. Currie, M. De Looze, C. Roberts, O. Samdal, O. R. F. Smith, V. Barnekow. (Eds.),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 \*Wu Linyan · 오인수 · Li Mingjii(2019), 「중국과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0(2), 349 - 376.
- Yang, Q., Tian, L., Huebner, E. S., & Zhu, X. (2019),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chool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longitudinal mediation model”, *School Psychology* 34(3), 328.

##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상호관계에 관한 체계적 문헌연구 —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최인찬·이채윤·류수경·임혜정·이선영·유백산·조병영

이 연구는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상호 관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 제3의 요인인 연결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 분석의 방법을 채택하여 리터러시의 인접 개념과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 간의 관계 밝힌 논문 4편, 리터러시와 연결 요인의 관계를 밝힌 논문 16편, 및 주관적 웰빙과 연결 요인의 관계를 밝힌 논문 110편을 선별하였다. 특히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 요인을 인지적, 정의적, 사회맥락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인접 개념 간의 관계를 밝힌 논문을 통해 리터러시 능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낮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두 요인 간 정적 상관의 가능성은 확인하였다. 또한, 연결 요인을 통해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사이의 간접적인 관계를 추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을 연결하는 연결 요인으로는 사회맥락적 요인이 가장 많았으며, 정의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연결 요인에는 학업성취, 정신

적 건강 상태에 대한 태도, 정체감, 인터넷/미디어 사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참여가 있었다. 연결 요인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요인들이 다수 있었으나, 국외 논문 등을 통해 해당 영역이 논리적 공백이 아니라 연결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탐구되지 않은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인접 개념과 두 개념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연결 요인을 밝힘으로써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 간의 상호 관계를 논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앞으로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살피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리터러시, 문식성, 문해력, 읽기, 쓰기, 의사소통, 주관적 웰빙, 주관적 안녕감, 웰니스, 행복, 삶의 만족,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맥락적 요인, 체계적 문헌연구

## ABSTRACT

# A Systematic Review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iteracy and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Research Studies in Korea -

Choi Inchon · Lee Chaeyun · Ryu Sukyung · Im Hyejeong ·  
Lee Seonyeong · Yu Baeksan · Cho Byeong-Young

This study aims to integrate research literatures and infer ab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iteracy and subjective well-being (SWB), which has not been explicitly revealed in the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With this study goal, a heuristic of systemic review was constructed to analyze and categorize the collected research articles in order to derive both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literacy and SWB. Among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we selected (1) four papers that examined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s of literacy and the adjacent concepts of SWB, (2) 16 paper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cy and the connective factors (e.g., communication, identity, scholastic achievement), and finally (3) 110 papers that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SWB and the common connective factors. In particular, the reviewed articles in the third group have informed our inferences about literacy-SWB associations, as those research studies were categorized into and analyzed as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contextual dimension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that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jacent concepts of literacy and SWB, it was reported about general tendencies that the lower the literacy ability, the lower the SWB; thereby indicating a possibl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concepts. In addition, the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literacy and SWB was inferred through the third category of connective factors, which is social and contextual. Social and contextual factors were most investigated in both liter-

acy and SWB research, as compared with affective and cognitive factors, including those such as identities, media use, economic conditions,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ctors was not clear-cut as revealed in the current systematic review of Korean research literature, but we note that some international studies become increasingly focused on the literacy-SWB relationship, which is likely to exist (In other words, the research gap in Korean literature may simply represent a lack of academic and scientific research while literacy-SWB seems to be an important area of research that captures attention from both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education).

This study signifies the close relationship of literacy and SWB and the connective factors between the two concepts, particularly in the social and contextual dimension. The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provides a baseline understanding for the follow-up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which the goals are to examine literacy-SWB associations in educational settings and thus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new knowledge about learning and learners to the problem-solving of educational practices.

**KEYWORDS** Literacy, Reading, Writing, Communication, Subjective Well-being(SWB), Wellness, Happiness, Life satisfaction, Cognitive Factor, Affective Factor, Social Contextual Factor, Systematic review